

영등포언니IRO [路]



원풍모방

원풍모방은 1,400명인 섬유산업체다. 여성노동자들은 1972년 노조를 민주화했다. 650명 조합원이 소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조직력이 강했고, 1973년 회사가 부도나자 노조가 자주 관리를 했다. 1982년 노조는 정권과 회사의 탄압으로 강제해산 당했다.

방림방직주식회사

방림방직은 노동자 6,000명(여성 90%)이 일했다. 1977년 2월 산선 회원을 중심으로 전 노동자들이 '정시출퇴근과 잔업수당 요구'투쟁을 벌였다. 사회 각 계인사 106명이 방림방직체납임금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했고, 노동자들은 요구를 확보했다.

대일화학

대일화학은 600명의 여성노동자들이 파스와 밴드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1978년 산업선교회 회원인 여성노동자들이 유령노조를 정상화하려 새 집행부를 구성하였는데, 회사는 전출, 시발서, 해고 등 극심한 부당한 노동행위를 가해 실패로 끝났다.

해태제과

해태제과는 3,000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일했다. 1976년 여성노동자 400명이 일요특근 거부운동을 벌였고, 1979년 7월 도급제 폐지와 '8시간노동제'투쟁을 벌여, 1980년 2월 '8시간노동제'를 확보했다. 이 투쟁의 성과는 전 식품업계에 확대됐다.

롯데제과

롯데제과의 노동자 2,700명은 1980년 5월 10일 노조민주화, 5월 14일 '임금재인상 20%, 상여금 400%'를 요구하며 파업했다. 이들은 5월 16일 정문 점거 농성을 벌였으며, 5월 17일 비상계엄확대 조치에도 1주일 이상 투쟁을 지속해 요구를 확보했다.

선일섬유

선일섬유는 노동자 300명인 속옷 생산업체다. 1984년 6월 9일 노조를 결성했고,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일상활동'을 펼쳤다. 1985년 임금인상투쟁에 승리했고, 노조들의 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구로동맹파업을 벌였다.

맥스테크

맥스테크는 미국의 의학서적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곳이다. 1987년 8월 27일 여성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뒤, 노조인정,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회사는 1987년 11월 30일 1차 폐업, 1988년 1월 4일 2차 폐업을 했다. 노동자들은 55일 투쟁으로 폐업을 저지했다.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산선)는 1960년대 후반 민중의 삶의 현장에 뿌리박는 '도시산업선교'를 표방하면서 등장했다. 산선은 대일화학, 원풍모방, 남영나일론, 방림방직, 해태제과 등의 여성노동자 활동을 지원했다. 신군부 등장 직후 활동이 일시 위축됐다.

청계언니IRO [路]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청계 피복)

청년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분신 항거하였다. 기념관은 그의 정신을 되살려 노동자·시민들이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노동의 의미를 배우는 '노동인권 교육 공간'으로 개관했다.

평화시장

1961년 평화시장(주)이 발족한 뒤, 1962년 동신시장, 1968년 통일시장, 1969년 동화시장이 개설됐다. 평화시장은 10~20인 규모의 영세사업장 570여 개에 2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했다. 당시 내수 70%를 차지한 전국규모의 기성복공급 시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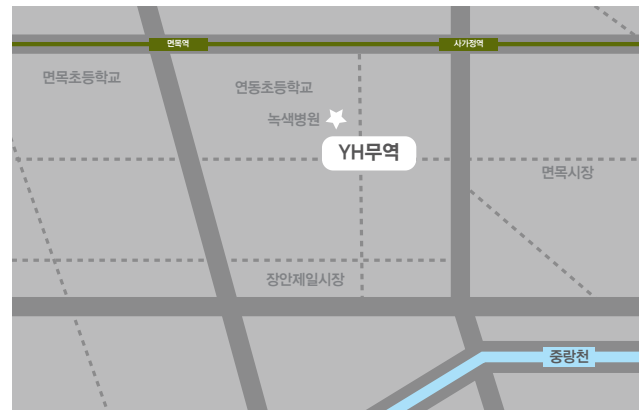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조 : 청계피복노조는 전태일분신사건의 영향으로 1970년 11월 27일 결성됐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소모임, 노동교실, 노동야학 등에 참여했다. 1981년 1월 정권이 노조를 강제 해산했고, 노동자들은 1984년 법외노조 복원, 1988년 노조 합법성을 확보했다.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은 1970, 80년대 산업화를 이끌었던 봉제의 역사를 돌아보고, 봉제산업의 명맥을 이은 패션산업의 배후기지로서 손 기술자들의 현재 이야기를 담아, 과거와 현재의 기술 토대 위에서 생산의 미래를 상상할 것을 표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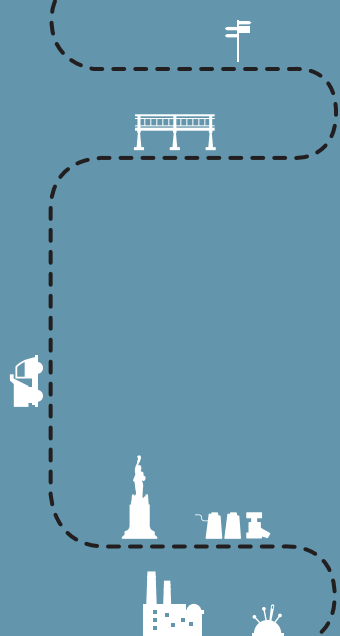
YH 무역

YH무역은 1970년대 초 종업원이 4,000여명에 이르는 한국 최대의 가발수출업체로 수출순위 15위의 대기업이었다. YH무역 노조는 1975년 설립되었으며, 1979년 8월 9일 마포구 신민당사에서 YH무역 여성노동자 187명은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 투쟁을 시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김경숙(당시 21세)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야당 및 여러 민주화운동 세력이 공동전선을 형성, 반유신투쟁에 나서는 계기가 되어 10·26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 받는다.



어니IRO [路]

여성노동자운동 발자취를 따라서



구로언니RO [路]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964년 8월 12일에 (구로, 부평, 주안, 남동 등)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본부는 2014년 대교로 이전했고, 현재는 서울지부로 있다.



수출의 여인상

1974년 구로공단 출범 10주년을 기념해서 섬유산업의 여성노동자들을 상징해 '수출의 여인' 동상을 세웠다. 한국의 수출 지향적 산업화 과정에서 조성된 구로공단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을 받으며 일한 여성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딛고 발전했다.

주)대협

대협은 대부분 18~22세인 여성노동자들이 바비인형, 인형 옷을 만들었다. 1976년 7월부터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회사는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740명의 노동자가 어용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근로조건 개선을 이뤄냈다.

대한광학

대한광학은 쌍안경, 포대경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800여 명(여성 400)이 일했다. 1988년 회사의 창원 공장 이전에 반대하는 투쟁이 68일간(4.19~6.25) 진행되었고, 1989년 말 다시 공장 이전 문제로 150명의 노동자가 230일의 투쟁을 벌였다.

가리봉전자

가리봉전자는 반도체 생산업체였다. 1984년 6월 8일 노조를 결성했고, 회사의 탄압을 딛고, 교육, 선전, 소모임활동 등을 활발히 펼쳤다. 1985년 임금인상 때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시도했다. 민주노조탄압에 맞서 구로동맹파업을 벌였다.

가리봉시장 고개 (옛 닭장집 밀집 지역)

닭장집은 구로공단이 조성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가리봉 일대에 생겨났다. 기본형태는 'ㄷ'자 가옥구조에 작은 방과 작은 부엌으로 구성되었고, 우물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했다. 한 집에 30~50개의 방이 있었다. 쪽방, 벌집으로도 불렸다.

가리봉시장

가리봉시장은 1976년부터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만들어졌다. 1970, 80년대에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소비처로 활성화됐고, 시장 안팎의 고고장, 극장 등은 노동자들의 문화장소였다. 공단의 쇠퇴와 함께 시장도 침체 되고, 2014년 전통시장으로 등록됐다.

서울통상

서통은 노동자 1,000여 명인 가발생산업체였다. 1980년 5월 여성노동자들과 회사 측이 각각 노조결성을 시도했다. 노동자들은 5월 15일 농성을 하고, 5월 17일 노조를 결성했다. 1981년 12월 회사는 정부기관, 서울시 등과 공모해 노조를 어용화시켰다.

효성물산

효성물산은 노동자 600명의 의류제조업체이다. 1984년 7월 14일 여성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회사의 협박, 폭행 등의 탄압을 딛고, 1985년 봄 철야농성으로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해소했다.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구로동맹파업을 벌였다.

대우어패럴

대우어패럴은 노동자 2,800명인 의류생산업체다. 1984년 6월 9일 노조결성 후 회사는 폭력탄압을 가했고 노동자들은 파업·농성으로 노조를 지켰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연대활동을 주도했다. 1985년 6월 22일 노조 간부들이 구속되자 동맹파업을 벌였다.

구로동맹파업 : 1984년 구로공단에 민주노조들이 결성되어 노동자들의 연대 활동이 활발했다. 정권은 1985년 6월 22일 대우어패럴 노조간부 3인을 구속했다. 6월 24일에서 29일까지 대우어패럴,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부흥사, 5개 노조가 동맹파업을, 다른 5개 노조가 지지연대투쟁을 벌였다. 전국의 민주화운동세력도 지지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들의 정치적 동맹파업이었다.

나우정밀

나우정밀은 노동자 1천 명인 무선전화기 생산업체였다. 1987년 8월 20일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는 조합원 중심의 활동으로 매해 임투에서 승리했다. 1990년 서노협'의 '모범노동조합상'을 받았다. 1997년 회사의 부도로 노조는 1998년 4월 해산했다.

남영나일론

남영나일론은 여성노동자 1,200명이 속옷과 스타킹 등을 생산했다. 1976년 산업선교회에서 모임을 하던 노동자 300명이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을 했으나 실패했다. 1976년 근로조건개선투쟁, 1977년 임금인상투쟁을 통해 노동문제를 사회문제화 시켰다.

콘트롤데이터

콘트롤데이터는 다국적 기업으로 컴퓨터 기억장치조립 생산업체다. 여성노동자들이 1973년 12월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는 생리휴가를 확보했고, 성차별적인 임금과 상여금문제도 해결했다. 결혼퇴직제를 폐지했고, 출산 휴가와 수유시간도 확보했다.

남화전자

남화전자는 카세트, 전자완구 생산업체다. 1980년 1월 여성노동자들과 회사 측이 각각 노조를 결성했다. 여성노동자들이 3월 항의농성을 벌여, 3월 26일 총회에서 단일노조를 구성했다. 노조는 7월 28일 임금체불문제로 파업을 했다. 1981년 폐업했다.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금천 순이의 집)

구로공단은 1960~9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인 봉제, 가발,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구로 노동자 생활체험관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구로공단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생활을 기억하려는 취지로 2013년에 만들어진 공간이다.

금천언니RO [路]



여성노동자 김경숙

[1958. 6. 5 일생]

1973년 가족 생활비와 동생 학비를 벌기위해 상경, 15살에 봉제 하청공장에서 일을 시작

“말로만 들던 철야작업을 두 달 동안이나 밤낮으로 하고 나자 코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건드렸다 하면 코피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1976년 서울생활 3년 만에 당시 국내 최대 가발업체였던 YH무역에 입사

“엄마, 나 좋은 데로 갔으니 걱정 말아요. 이제 밥도 해먹고 장롱도 아주 좋은 거 있으니까”

그러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뀜

“오늘은 새벽 4시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육체는 고달프고 눈이 아파 오며...”
“사람이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일을 시킨다는 걸 생각할 때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

1979년 8월 입사 3년 만에 회사는 몇 달치 임금을 체불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폐업공고

1979년 8월 9일 신민당사를 찾아가 농성을 시작한 187명의 YH무역 여성노동자들

1979년 8월 11일 새벽 2시 제1야당 당사에 1,200여 명의 경찰이 들어와 강제진압 강제진압과정에서 YH무역 노조집행위원이었던 김경숙 사망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평범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며 우리 권리를 스스로 찾는 과정에서 주인으로서의 우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김경숙 열사 일기 중 -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
대표전화 : 02-3141-3011 / 상담전화 : 02-3141-9090
www.equaline.or.kr